

불 밝힌 챔스필드...KIA 마지막 경쟁 시작됐다

시즌 적응 위해 첫 야간경기...김종국 감독 "내야수·포수 더 지켜볼 것" 엔트리 구성 시험무대 끝...남은 시범경기 승리 향한 본격 준비무대로

챔피언스필드에 새 시즌을 밝히는 조명탑이 켜졌다. '호랑이 군단'의 엔트리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KIA 타이거즈는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범경기를 치렀다. 앞서 오후 1시에 경기를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오후 6시에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올랐다. 시즌 적응을 위한 야간 경기가 진행된 것이다. 챔피언스필드 조명탑도 다시 불을 밝히면서 새로운 시즌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위한 리허설을 전개한 김종국 감독은 '실전'을 강조했다. 김종국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즌 들어가지 전까지 6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실전 위주로 갈 것이다. 선수들이 야간 경기에 적응하는 게 급선무고 실전에 가깝게 할 생각이다. 앞으로 작전도 펼쳐면서 실전 위주로 가겠다"고 밝혔다. 앞선 시범경기가 엔트리 구성을 위한 시험무대였

다면 오는 29일 SSG전까지 남은 시범경기는 '승리'라는 목표를 위한 준비무대라는 것이다. 시험무대를 통해서 2022시즌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김종국 감독의 '행복한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각 포지션에서 선수들이 뜨거운 경쟁을 하면서 사령탑에 고민을 안겨줬다. 김종국 감독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다 잘하고 있어서 행복한 고민에 가깝다. 시범경기 때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직 모른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자리는 내야수와 포수 부문이다. 김종국 감독은 "내야수 쪽 정리도 해야 하고, 포

수도 마찬가지로"며 "컨디션도 봐야 하고 그 위치에 맞는 수비 능력, 공격 지표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포수 쪽은 수비가 우선이고, 다른 포지션은 타격과 수비 둘 다 봐야 한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투수들을 놓고도 고민이 빠져있다. 다들 잘 던지고 있다. 시범경기 끝나면 엔트리가 정해지는 데 말하기 마음 아프고 타자 쪽도, 투수 쪽도 행복한 고민이라면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엔트리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김도영의 엔트리 진입은 결정했다. 시범경기에서 뜨거운 질주를 펼치고 있는 만큼 1군에서 프로 시즌을 출발하게 할 생각이다.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개막전 선발 출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은 "지금은 도영이가 잘 하고 있다. 수비 위치는 유격수가 될지 3루수가 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준다면 스타팅으로 나가야 한다"면서도 "상대팀이 약점을 파고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선발 출장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겨놨지만 김도영의 재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다. 김종국 감독은 "이정후(키움), 강백호(KT)도 있지만 최근에 KIA에 입단한 야수 중에서 전체적으로 두루 갖춘 선수로는 최고다. 우리 팀에서는 최고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체적인 균형이 잘 잡혀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성범·김도영 KIA 대표로 31일 미디어데이

'나스타' 나성범과 '슈퍼루키' 김도영이 KIA 타이거즈 대표 선수로 미디어 데이에 오른다. KBO가 오는 31일 오후 2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2022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를 연다.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KBO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KIA에서는 고향팀에서 새출발을 하는 나성범과 프로 데뷔 시즌을 앞둔 김도영이 새로운 사령탑 김종국 감독과 행사에 참가한다. 또 KT 박병호-강백호, 두산 김재환-페르난데스, 삼성 오승환-구자욱, LG 김현수-박해민, 키움 이정후-푸이그, SSG 추신수-김광현, NC 양의지-손아섭, 롯데 이대호-박세웅, 한화 하주석-노시환 등 각 구단 대표 선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김도영은 미디어데이에 참석하는 유일한 신인

이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총 2부 행사로 구성되며 오프닝 무대로 각 팀 감독, 선수단, KBO 리그 40주년 브랜드 스토리 및 캐치프레이즈 소개가 이뤄진다. 1부에서는 10개 구단 감독들의 2022시즌 출사표와 각오 등을 들어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선수 20명을 대상으로 올 시즌을 앞둔 소감 발표와 미디어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후 KBO 공식 SNS에서 진행된 '보이스 오브 팬'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사전 질문을 묻는 코너가 진행된다. 열성 야구팬인 개그맨 김태균이 특별 MC로 코너를 진행한다. 질문이 당첨된 팬들에게는 사인 공인구가 경품으로 증정된다. 팬 이벤트에 이어 선수단 단체 촬영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조직력 축구로 홈에서 승점 사냥 재개

26일 아산과 K리그2 7라운드 전남은 안산 상대 4연승 도전

프로축구 광주FC가 홈에서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광주는 26일 오후 1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충남아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22 7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FA컵 포함 4연승까지 내달렸던 광주는 앞선 부천FC 원정에서 연승을 멈췄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 하고도 골대 불운과 결정력 부족으로 0-2패를 안고 돌아왔다. 선두까지 노려보던 상황이었던 만큼 아쉬운 패배지만 광주는 원정에서 다시 조직력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결정력이 이번 경기의 키워드다. 광주는 앞선 부천원정에서 7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득점포 가동을 쉬어갔지만 이견희와 헤이스가 왕성한 움직임과 골문에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나란히 3골씩 기록, 득점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려놨다. 중원에서는 이순민과 정호연이 꾸준하게 그라운드에서 오르고 있고 이찬동, 김중우 등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도 점점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에 발 빠른 이희균까지 가세하면서 경기운영의 폭이 넓어졌다. 1승 3무 1패로 리그 8위에 올라있는 충남아산은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현재 2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라운드 김포FC와의 맞대결에선 4골을 몰아넣으면서 폭발적인 공격력도 과시했다. 최근 분위기는 충남아산이 앞서지만 역대전적에서는 4승 3무 1패로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



부천원정에서 연승이 중단된 광주FC가 안방에서 다시 승점 쟁기에 나선다. 3골로 이견희와 득점 공동 1위인 헤이스가 공격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다. 또 충남은 앞선 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지만 이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득점 없이 경기를 끝내는 등 공격에 기록을 보이고 있다. 광주가 선제골로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충남아산전 강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26일 오후 6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4연승 질주에 나서게 된다. 개막 후 3경기에서 골 침묵을 지키면서 1무 2패에 그쳤던 전남은 경남 원정을 시작으로 앞선 부산 원정까지 3연승을 이었다. U22 손호준의 프로데뷔골과 함께 새 외국인 선

수 플라나가 2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면서 2-0 승리를 합작했다. 이 승리로 전남은 6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하지만 상승세 속에 전남이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만났다. 전남은 지난 23일 'ACL 출전에 대비하여 23일 진행된 코로나19 PCR 전수조사 결과 다수의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일부 인원도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 좋은 상승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마주한 전남은 힘든 4연승 도전에 나서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사카의 강력한 리턴 오사카 나옴이가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1회전에서 오스트리아의 아스트라 샤르마를 상대로 강력한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광주대 출신 장신 수비수 김재봉 영입

광주FC가 광주대 출신의 장신 수비수 김재봉(25·사진)을 영입했다. 광주는 23일 성남FC, 제주UTD, 안산 그리너스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재봉(25)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188cm·78kg의 김재봉은 공중볼 장악과 대인방어가 장점인 중앙 수비수다. 또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정확한 왼발킥으로 측면 수비까지 가능하며, 빌드업에 능해 공격전개 시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재봉은 광주대 재학 시절 탄탄한 수비로 U리그 권역리그 우승(2015·2017), 2015 제9회 전국

체육대회 준우승 등을 이끌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성남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재봉은 당시 수석코치였던 이정호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고, 2020년에는 제주에서 함께 팀 승격의 현장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안산으로 이적한 김재봉은 현재 K리그 통산 20경기에 출전했다. 김재봉은 "광주라는 팀은 항상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이다. 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성남과 제주 시절 이정호 감독님께 수비라인에서의 소통과 조직력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들었다. 좋은 경기력을 펼쳐 팀 승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프로배구 'FA 원톱' 양효진 어디로

FA시장 개장...13명 명단 공개

여자 프로배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조기에 막을 내리면서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예정보다 일찍 개장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여자부 FA 자격을 얻은 13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이들은 공시 즉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협상 마감 시한은 4월 6일 오후 6시다. 여자 프로배구는 2018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했다. 연봉을 기준으로 FA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연봉 1억원 이상이 A그룹, 연봉 5000만~1억원 미만인 B그룹, 연봉 5000만원 미만인 C그룹이다. A그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해

당 선수의 전 시즌 연봉 200%와 FA 영입 선수를 포함해 6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 또는 연봉 300%를 보장하면 된다. B그룹 선수는 전 시즌 연봉의 300%, C그룹 선수를 데려오려면 전 시즌 연봉의 150%를 지급하면 된다. 팀별로는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이 4명으로 가장 많다. 양효진, 고예림(이상 A그룹), 김주하, 이나연(이상 B그룹)이 FA 자격을 얻었다. IBK기업은행이 표승주, 신연경(이상 A그룹), 최수빈(B그룹) 3명이 FA로 풀려 그 뒤를 따랐다. 이밖에 유서연, 안혜진(이상 A그룹·이상 GS칼텍스), 임명욱, 이고은(이상 A그룹·이상 한국도로공사), 김다솔(B그룹·흥국생명), 고민지(B

그룹·KGC인삼공사)가 FA 자격을 취득했다. 리베로 임명욱은 통산 5번째 FA 자격을 얻었고 센터 양효진도 4번째 FA 계약을 앞두고 있다. FA '원톱'은 양효진이다. 양효진은 2020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양효진은 블로킹 1위, 속공 1위, 오픈공격 1위를 차지하며 올 시즌 현대건설을 역대 최강팀의 자리에 올려놨다. 또한 득점 7위, 서브 8위, 시간차공격 9위 등 공격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가 탐낼만한 선수지만 9년 연속 '연봉퀀'에 오를 정도의 높은 몸값과 이에 따른 부담스러운 보상 규모로 인해 타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효진 외에도 국가대표 세터인 안혜진, 레프트 자유훈 표승주, 고예림, 유서연 등의 행선지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